

집단 따돌림당하는 고등학생의 가족치료

박 태 영*

I. 서론

본 사례는 7년 전부터 학교의 급우와 교회내의 주일학교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인 클라이언트의 가족을 치료한 사례이다. 클라이언트는 4년 전에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 클라이언트는 분노와 함께 삶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사회성과 집중력이 결여되어 있었다. 클라이언트는 2남 1녀 가정에서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밀착되어 있으면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아버지와는 갈등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교회생활에 너무 열중하여 자신과 동생들을 돌보는 시간이 적었다고 하였으며, 특히 부모들은 매일 새벽기도와 가정예배를 강요하여왔다고 한다. 또한 클라이언트는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자신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간상을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클라이언트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도 어머니는 사사건건 간섭을 해오고 있었으며, 모자간의 모호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었다. 집에서 클라이언트는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늘 동생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부모님들이 자신이 동생들에게 하는 행동에 대하여 동생들 앞에서 인정은 고사하고 오히려 구박을 하고 있었다. 클라이언트 급우들은 처음에는 클라이언트가 약하게 보여 집단 따돌림을 시켰으나, 이제는 급우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 싫어 도끼눈을 하고 욕을 하면서 강한 척하려는 반대의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친구들은 이전과는 또 다른 차원의 집단 따돌림을 하고

*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조교수

있었다.

II. 집단 따돌림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집단 따돌림의 정의

최근 학교내 집단 따돌림으로 인하여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등 피해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학교 뿐 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에서도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왕따'란 '왕 따돌림'의 준말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은어로 소통되는 용어이다. 이는 급우들로부터 소외되고 괴롭힘을 당하는 따돌림 행위와 따돌림을 받는 피해학생을 지칭하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학자에 따라서 왕따라는 용어 대신에 '집단 따돌림' 혹은 '집단 괴롭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Olweus(1993)는 집단폭력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불균형적인 힘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돌림은 집단폭력의 하위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이상균, 1999).

'집단 괴롭힘'이라는 용어로 일본어로 이지메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괴롭힘은 고립과 따돌림의 결과를 낳게 된다. Roland(1988)는 괴롭힘을 "실제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개인에게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강진령과 유형근(2000)은 괴롭힘을 "공식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정의된 강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적이나 만족을 위해 스트레스를 유발할 의도로 저항할 힘이 없는 사람들을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언어적으로 반복하여 공격하는 행위"로 정의 내리고 있다. 구본용(1997)은 '집단 따돌림'을 "두 명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인(혹은 특정 집단)을 그가 소속해 있는 집단 속에서 소외시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약을 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혹은 음해 하는 언어적, 신체적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Schuster(1996)에 따르면, 집단 따돌림은 집단에서 같이 어울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적고,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때 발생한다. 이러한 집단 따돌림은 사회적 관계의 소외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 볼 때, 집단 따돌림이란 두 명 이상의 집단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인, 언어적, 인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피해는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정의 내릴 수 있다.

2. 집단 따돌림당하는 개인적 행동 특성들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약한 학생으로서 심신장애가 있거나, 지적능력이 떨어지거나, 체격이 작고 왜소하거나 또는 힘이 약하고, 정서적인 장애를 가진 학생을 말한다. 둘째, 평범한 학생으로서 보통 튀는 행동을 하거나 남을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따라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은 척하거나, 이기적이고 남을 무시하거나, 믿을 수 없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서영창(1999, pp. 44-45)에 따르면, 집단 따돌림당하는 개인적인 특성으로서, 첫째, 학교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공상이나 잡념 등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하는 경우이다. 둘째, 유행, 연예인, 관심도 등의 또래 문화환경에 맞지 않는 엉뚱한 행동, 소극적인 회피 행동 등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셋째, 내성적인 성격으로 자기 주장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내숭을 떠는 것으로 오해)이다. 넷째, 친구들이 놀리거나 괴롭힐 때 묵묵히 당하고도 가만히 있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과민 반응과 공격적 행동이나 거친 반응을 보이는 경우이다. 다섯째, 대인 관계에서 경계와 피해 의식이 많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이해나 공감에 부족한 경우이다.

본 사례의 클라이언트는 어려서부터 체력이 떨어졌으며, 힘이 매우 약한 경우였고, 상대적으로 지적인 능력이 뛰어났다. 따라서, 어려서부터 친구들과 놀거나 운동 등을 하며 어울리지 못한 대신에 독서에 몰두하여, 또래의 친구들보다는 지적인 면에서 탁월하여, 친구들과 대화하는데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또래의 친구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러한 남을 무시하는 행동이 친구들에게는 튀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 교회의 친구들과 학교 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클라이언트는 더욱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클라이언트는 처음에는 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할 때 묵묵히 당하면서 가만히 있었으나, 나중에는 오히려 과민 반응과 더불어 연필이나 컴퍼스 등으로 괴롭히는 친구들을 찢어버리는 결과가 일어났다. 결과적으로 클라이언트는 대인 관계에 많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피해의식은 가정에서 특히 아버지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3. 집단 따돌림당하는 원인

황성숙(1998)에 의하면, 집단 따돌림의 피해, 가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부모의 감

독,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가정과 관련한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 자식간의 대화 단절로 일반적으로 '왕따'로 지목되어 따돌림당하는 아이들은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는데, 이를 부모로부터 이해 받기보다는 오히려 꾸중만 들을 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부모와의 대화 문제로 인한 것이다. 이런 가정 환경에 의한 경험이 또래 집단에서도 비슷한 행동으로 나타나서 결국 따돌림의 개인의 특성에 따라 가해자나 피해자로 나타나고 있어 부모의 의식이나 가치관이 무엇보다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사례에서 클라이언트는 출생시 아버지가 해외에서 직장생활을 하여서,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으며, 아버지가 귀국한 이후에도 아버지와 소원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어려서는 조부모와 함께 생활하였다. 한편, 아동기에는 부모님이 교회생활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집을 비우는 시간이 잦았고, 형제들만이 집에서 함께 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소홀함에 대하여 클라이언트는 불만을 토로하였다. 클라이언트는 특히 부모 중 아버지와 갈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아버지가 자신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강요함으로써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욕구불만을 수용해주지 못하는 아버지에 대하여 적대적인 감정이 표출되기도 하였다.

Ⅲ. 문제점 및 치료목표

클라이언트 부모는 클라이언트의 부정적인 사고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러한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하기를 원하였으며, 또한 클라이언트는 사회성과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보아 이 상담에서 클라이언트의 사회성과 집중력의 증진을 원하였다. 이에 반하여 치료자는 이와 같은 클라이언트 부모님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치료목표를 설정하였다.

첫째, 클라이언트와 부모와의 의사소통 방법을 관찰하여,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하였던 방법을 조사한다.

둘째, 아버지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일방적인 강요방식을 전환한다. 즉, 여기서는 아버지가 클라이언트에게 지금까지 강요해왔던 '인간상'에 대한 인지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클라이언트가 생각하는 자신의 '인간상'을 인정하고 수용하도록 한다.

셋째, 어머니와의 밀착된 경계선에서 명확한 경계선과 아버지와는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추구

하도록 한다.

넷째, 부부체계와 자녀하위체계간의 경계선을 설정하고, 형제하위체계에서 클라이언트를 장남으로서 위계 질서에서 우위에 놓도록 한다.

IV. 치료모델

1. MRI(Mental Research Institute)의 상호작용적 가족치료

내적인 심리 역동에 초점을 두지 않는 의사소통 이론가들은 사람의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가족체계에 대하여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 이론가들은 가족성원들의 개인적인 역사적인 분석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가족체계 내의 관찰할 수 있는 현재의 상호작용(관계)에 초점을 둔다. 특히 의사소통 훈련은 결혼관계에서 갈등문제에 대하여 배우자에게 의사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Jacobson, 1986). 특히 행동주의 부부치료자들은 문제해결과 행동변화를 위하여 경청하는 것과 표현하는 것을 가르쳐 왔다(Baucom et al., 1995; Christensen et al., 1995).

가족치료의 창시자들은 정신분열증 환자들을 중심으로 가족치료와 관련된 많은 개념들을 발견하였는데, 그중 Palo Alto에 위치한 MRI(Mental Research Institute)집단의 여러 학자들의 연구로부터 의사소통 가족치료의 중요개념, 이론적인 틀, 치료적 기법 등이 나왔다. 특히, MRI집단의 의사소통 이론가들은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메시지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였다. 사람들은 언어적인 채널과 비언어적인 채널의 두 가지를 통하여 끊임없이 복잡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아들인다(Weakland, 1976). 수신자는 말하여지는 것과 송신자의 음조 혹은 몸짓으로 표현되어지는 것 사이에 모순이 나타날 때 혼란해 질 수 있다. 이중구속(속박)(double-bind) 메시지는 역설적인 명령 중에 특히 파괴적인 형태의 메시지를 나타낸다. 이중구속 메시지는 특히 힘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수신자에게 역설적인 상황을 낳게 되는 논리적으로 일치하지 않고 모순되는 요구나 혹은 동시에 두 가지 수준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명령을 말할 때 발생된다(Goldenberg, & Goldenberg, 2000).

MRI집단은 의사소통과 체계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클라이언트에게 나타나는 증상에 초점을 맞춘 단기치료접근법이다. 치료의 목적은 클라이언트가 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효과적으로 클라이언트가 제시하고 있는 불평을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Shoham et al., 1995). MRI 집단은 Watzlawick와 그의 동료들에 의하여 개발된 상호작용적 치료의 이론적 토대에 기여하였다. 이 접근법은 수많은 문제를 다루는 실제적인 치료모델이며(박인철 역, 1995; Watzlawick et al., 1974; Weakland et al., 1974),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병리적인 시각으로 설명하는 것을 지양하고 클라이언트의 불평과 변화를 위한 목표의 두 가지 측면에서 클라이언트 중심의 치료 방식을 사용한다(Duncan et al., 1992). MRI 단기치료모델은 현재 클라이언트에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두며(Schlanger & Anger-Diaz, 1999), 문제와 변화에 대하여 두 가지의 상호연결된 가정에 입각해 있다. 문제의 기원과 원인과는 상관없이, 만일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가 상호작용 하는 사람들이 현재의 문제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클라이언트들이 심리치료자에게 가지고 오는 문제들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다. 반면에, 만일 문제를 유지시키는 행동이 적절하게 변화되거나 제거되어질 때 그 문제의 성질이나 기원, 혹은 기간에 상관없이 그 문제는 해결되거나 사라질 것이다(Weakland et al., 1974). 따라서 이러한 면에 있어서 MRI의 상호작용적 가족치료 모델은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다.

MRI 집단에 따르면, 가족의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가족의 시도에 의해 오히려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MRI 집단은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상호작용의 과정을 강조하고 일반적인 시각에서 모든 행동은 사회체계 내에서 더 폭넓게 진행되는 의사소통의 교류 가운데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Duncan et al., 1992). MRI 집단은 인간은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발달시키는 것으로 본다. 첫째, 어려움을 잘못 다루는 것이다. 둘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실패와 똑같은 문제해결방식의 계속적인 적용이다(Watzlawick et al., 1974). MRI모델은 '문제'란 오랫동안 그 문제를 변화시키려고 계속해 온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그러한 문제행동들이 지속되는 것은 일차적으로 사람들이 그 문제행동들을 변화시키려고 행하여 왔던 방법, 즉 사람들의 '시도된 해결'에 있다고 본다. 또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감소시키려고 시도해 온 해결책이 종종 문제를 유지시키거나 혹은 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기까지 한다(Goldenberg, & Goldenberg, 2000). 따라서 치료자의 일차적인 임무는 새로운 또는 다른 행동을 기존의 행동과 대체하거나, 본래의 문제행동을 '하찮은 문제'로 재평가하는 것에 의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지금까지 시도해 온 해결책을 소개하는 것이다(Weakland, 1993). 또한 문제를 유지시켜 왔던 차례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MRI 모델에서는 가족들에게 상식과는 반대되는 일들을 하게 하거나 혹은 믿을 수 있도록 하게 한다(Nichols, & Schwartz, 2001).

MRI 모델의 치료의 초점은 해결책에 있고, 치료의 중심된 과업은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클라이언트에 의해서 제안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행동적인 용어로서 구체적이고

분명한 묘사를 얻는 것이다. 둘째, 모든 시도된 해결책의 공통의 특징과 중요한 취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셋째, 클라이언트가 말로나 행동으로 완전히 다른 어떤 것을 하도록 치료자의 영향력을 사용하는 것이다(Schlanger & Anger-Diaz, 1999).

여기서는 MRI의 상호작용적 치료모형을 적용하여 지금까지 클라이언트와 부모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왔던 방법을 찾아본다. 예를 들면, 부모는 클라이언트에게 날마다 가정에배를 강요하여 왔는데, 이러한 강요된 가정에배로 인하여 클라이언트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상담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클라이언트가 원할 때까지 가정에배를 드리지 않기로 하였다. 아버지가 클라이언트가 추구하는 자아상을 상담이전에는 전혀 수용해 주지 않았으나, 상담이후로는 아버지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하여 클라이언트의 자아상에 대해서 인정해주기 시작하였다. 아버지는 클라이언트의 욕에 대해서도 상담이전에는 무조건적으로 야단을 쳤으나, 상담을 받으면서 아버지가 아들의 그러한 욕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야단을 치는 방식에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2. Salvador Minuchin의 구조적 가족치료모델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은 가족체계 자체의 역동적 질서에 관심을 두고, 진단과 치료를 위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아주 기본적인 구조와 체계를 가지고 가족을 묘사하는 모델이다. 구조적 가족치료자들은 개인을 사회적인 존재로서 파악하여 개인을 둘러싼 구조에 초점을 두었다. 가족의 구조가 변하면 동시에 가족의 지위가 변하며, 결국에서는 각 가족성원들의 경험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접근법의 주된 특징은 치료의 목적으로 가족내의 구조적 변화를 강조하는데 있다. 이 접근법에서 치료자는 개인변화, 가족체계, 가족역동을 잘 이해하여 가족의 재구조화를 행하는 역할을 한다(Colapinto, 1991).

Minuchin에 의하면 가족체계는 하위체계로 분화되고, 하위체계를 통해 가족체계의 기능을 수행한다. 하위체계는 가족구성원들의 경계와 규칙에 의해 규정된다. 또한 가족의 하위체계는 부부 하위체계, 부모 하위체계, 형제 하위체계, 부모-자녀 하위체계로 나뉘어 질 수 있다. 잘 기능하는 가족에서는 가족체계에서 개별화와 통합성을 중요시하는 방법으로 작용한다. 만일 가족성원들이 그들의 걱정을 말하고, 문제에 직면하며 그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더 건강해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가족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가족체계에 적응하려고 하며 그들의 실제의 감정을 숨기려고 한다(Lewis, 1992).

클라이언트의 부모는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자녀의 양육방식에서는 다소의 견차가 있었다. 클라이언트는 어머니와는 밀착된 경계(enmeshed boundary)를, 아버지와는 분리된 경계(disengaged boundary)를 유지하고 있었다. 클라이언트는 형제 하위체계에서도 부모로부터 장남으로서의 권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족 내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치료자는 어머니와의 밀착된 경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반면에, 아버지와는 클라이언트와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치료목표를 세웠다. 한편, 이러한 부모들과의 관계 변화로 인하여 클라이언트가 형제 하위체계에서 장남으로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초이론적 모델(Transtheoretical Model)

초이론적 모델은 클라이언트가 변화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이다. 전인식 단계(precontemplation stage): 인식단계(contemplation stage): 준비단계(preparation stage); 행동단계(action stage); 유지단계(maintenance stage)

첫째, 전 인식 단계는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변하는 것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있다거나 병리적이라는 것으로 인식하려는 것에 대한 저항이 나타나는 단계이다.

둘째, 인식단계는 개인적인 문제가 존재하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문제와 원인, 해결책을 이해하려고 하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자신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삶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셋째, 준비단계는 자신의 의도와 행동적인 기준을 통합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 있는 개인들은 즉각 행동을 취하려고 의도하고 약간의 행동의 변화를 알린다. 그렇지만, 비록 문제행동에 대한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준비단계에 있는 개인들은 효과적인 행동을 위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넷째, 행동단계에서는 자신들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동, 경험, 환경을 바꾸는 단계이다. 행동은 가장 현저한 행동의 변화를 포함하며,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의 투자를 요구한다. 행동단계에서의 이루어진 문제행동의 변화는 확실히 보여지는 경향이 있으며, 굉장한 외부의 인정을 받게 되는 단계이다.

다섯째, 유지단계는 행동단계에서 얻은 것을 계속하고 더 문제화된 기능의 수준으로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단계이다. 이러한 유지단계는 최소한 6개월 정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종종 수년동안 지속되거나 평생을 지속할 수도 있다(Prochaska & Norcross, 1999).

부모는 상담 처음에는 학교생활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클라이언트를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였으나,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에 자신들이 어려서부터 클라이언트에게 지나치게 신앙생활을 클라이언트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요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자신들이 클라이언트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함께 할 시간에 교회생활에 바빠 클라이언트와 대화할 시간들을 갖지 못 하였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즉,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클라이언트의 부모는 전 인식 단계에서 인식단계로 변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어머니의 경우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밀착된 관계에서 명확한 경계를 두는 쪽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아버지의 경우는 자신의 인간상을 클라이언트에게 강조하였던 것으로부터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존중하고 클라이언트가 추구하는 인간상을 또한 인정하는 행동 단계로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변화단계에서 부모는 어느 정도 이러한 변화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클라이언트는 부모의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원하지 않았던 학교생활을 자퇴하고 주변으로부터 별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됨으로써 가정 내에서 욕을 덜 하게 되고, 형제관계에서도 동생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다.

V. 치료과정

본 사례는 2000년 5월부터 시작하여 7월까지 총 6회 상담을 하였다.

Session 1회(2000년 5월 6일)

클라이언트는 부모와 함께 치료자의 연구실에 오자마자 불만스런 표정으로 소파에 앉으면서 치료자에게 인상을 쓰고 자신은 부모님 때문에 마지못해 이곳에 오게 되었으며, 다음에는 이곳에 오지 않겠다며 상담을 시작하였다.

T: 뭐가 불편하니?

C: 별로 불편한 것은 없어요. 가끔 습관적으로 눈이 내려가요.

T: 무엇 때문에 그러니?

C: 왜냐하면... 눈을 이렇게 하고 다니니깐 애들이 안 건드리고요 길도 비켜주고 그래요. 또 요즘에는 약간 사악하게 하고 다니면 인기가 높아져요.

T: 언제부터 그렇게 하게 되었니?

C: 언제부터냐고요? 2달 전부터요.

M: 애가 약간 눈에 약시가 있어요. 어렸을 때 치료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네요.

T: 그러면 너는 지금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니?

C: 전 예전에 죽으려고 했거든요.

T: 무엇 때문에?

C: 무엇 때문이냐고요? 예전에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도 나하고 시간을 가져 주지 않고 제 편이 없었어요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어줘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살아 갈 수가 없다 차라리 죽자 생각했어요

T: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지메를 당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C: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했어요. 중학교 때는 착해 보이니까 애들이 괴롭힌 것 같아요.

T: 집에서 부모님과 대화할 수가 없었니?

C: 네.

T: 한 번 네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경우를 생각해서 이야기 해 줄 수 있겠니?

C: 기억하면 수도 없어요. 예전에 중학교 때 선생님이 자꾸 저를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별로 엄청난 잘못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제 말이 아니라 선생님 말만 100%로 믿어요 중학교 때는 엄마·아빠와 굉장히 말이 안 통했고요 지금은 아버지하고 생각의 차이가 상당히 커요 아버지가 생각하는 인격적인 인간상과 제가 생각하는 인격적인 인간상의 거리가 상당히 크거든요 아버지의 인간상이란 것은 예수와 부처의 전인적인 인간상인데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인간상은 자기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없는 사람 도와주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담임을 죽이는 생각을 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는데 사람에게는 누구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카타르시스 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카타르시스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현실 속에서 할 수 없는 것으로 약간 잔인하게 하는 것뿐인데 부모님은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T: 내가 부모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C: 지나친 간섭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간섭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도 알고 또 체험도 했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T: 어느 분이 간섭이 심하니?

C: 양쪽 다 심한데 아버지가 간섭이 더 심해요 조크를 조크로 안 받아 드리고 화를 내서

어이없는 해프닝이 벌어져요

T: 네가 여기에 온 목적이 뭐니?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니?

C: 저는 사실 여기 오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저를 여기로 유괴했어요.

T: (부모님께) 여기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F: 우리아이가 자라온 과정에서 보면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공부보다도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는 것을 강조하죠.

T: 자녀가 지금 사람다운 사람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까?

F: 예를 들면 공부를 안하고 시험을 보면 못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열심히 한 것은 아니에요.) 시험을 보고 와서 ‘재수없어. 운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리고 최근 사건인데요 시험을 보는데 답안지에다가 선생님한테 ‘야! 임마! 뒤를 봐!, 야! 임마! 뒤를 봐’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물론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지만 왜 이런 것을 밖으로 표현하느냐 이거죠. 이것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냐하는 거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문제 해결 방법으로 용돈을 풍족하게 줘서 친구들과하고 사귀고 대화하도록 했죠. 효과는 많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걱정되는 것은 사회성이 부족하고 행동이 그 나이에 비해 더디고 집중력이 결여 된 것입니다.

M: 남편과 자녀 사이에 성장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혼하고 민형이 낳기 바로 1주일 전에 남편이 민형이를 못 본 체 해외로 발령 받아서 다녀왔어요. 그 동안에 저희가 8남매인데 다 결혼을 시키고 부부만 사시는 친정에 가서 할머니·할아버지 밑에서 아이를 낳고 1년 10개월 동안 양육을 했어요. 민형이는 자라면서 할아버지·할머니께 굉장히 귀여움을 받고 자랐죠. 그 후 아빠가 돌아와서 함께 살게 되었는데 아빠 얼굴을 처음 보니까 아빠한테 적대감이 생겨서 아빠 얼굴을 긁어 놓기까지 한 거예요. 민형이는 아는 얼굴(할아버지, 할머니)만 좋아했고 그 외의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민형이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영특했어요. 그런데 지적인 것이 발달하는 대신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못했어요. 아이들하고 어울리도록 하려고 하면 민형이는 책상에 앉아서 책 속에 빠져 버리니까 아이들이 모두 민형이를 싫어한 거예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잘못된 것은..... 제가 다니는 교회가 이쪽으로 개척을 해서 급성장을 하면서 유치원을 개설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렇고 유치원에서도 사람들이 이러한 민형이가 너무 영특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민형이를 밖에다 하루종일 세워두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잘못된 신앙 때문에 그래도 교회문턱이라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1년 동안 민형이를 방치해 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보내도 유치원 때 받았던 상처받은 감정이**

하나도 버려지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공부는 아주 잘했지만 학교 생활에 재미를 전혀 느끼지 못했죠. 하지만 민형이의 의식 속에는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되어야 한다는 즉 튀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갖은 수모를 겪으면서도 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선생님들에 대한 폭발적인 미움이 있어요.

T: 민형이 어머니께서는 민형이가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M: 제가 염려해서 온 것은 이 아이의 마음의 분노, 앞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고 싶어서 온 거예요. 아이들이 민형이의 말을 듣고 악귀가 연상된다고 하는데 민형이는 말을 무섭게 함으로써 그 속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C: 그게 아니라 제가 너무 순수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당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악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악이란 것을 배웠어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사악해서 내가 애들을 피했는데 요즘은 애들이 제가 악하다고 피해요.

T: 너는 네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

C: 저는 완벽한데 애들이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히면서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빠와 대립하는 것은 아빠랑 저랑 바라는 인간상이 틀리기 때문이고 엄마와 대립하는 것은 가끔 가다가 나의 사악한 면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부모님보다는 사회에서 괴로움을 많이 당했어요. 특히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저한테 저속애나 가라 그러고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러면 부모님 자식이 아니라고 그러셔서 교회는 억지로 다니고 있어요.** 특히 아버지는 용돈으로 협박을 하면서 **은근히 교회 다니라고 강요하고 있어요.**

Session 2회(2000년 5월 10일)

T: 엄마·아빠하고의 대화는 어떠니?

C: 괜찮아요. 가족 내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요.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어요. 두 분다 종교를 강요하는데요, 특히 아빠가 금전적인 것으로 저한테 강요해요.

T: 금전적인 것으로 어떻게?

C: 교회에서 불성실하게 하면 용돈을 줄여버려요. 아빠 말씀대로 안 하면 제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든지 용돈을 줄여버리는 피해가 오기 때문에 사춘기 때도 반항을 안 했어요.

T: 내가 이지메를 당하는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니?

C: 이지메를 당하는 주된 원인이요? 이지메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요. 이지메를 당하는 원인은 공동체에서 튀거나 조금 떨어지는 인간을 몰아내기 위한 것과, 유순하고 암전해 보여 건들기 쉬워 보이는 사람을 이지메 시킨다고 하던데,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 말씀대로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잘난 체 하는 녀석 이면서 동시에 만만해 보이는 녀석으로 통했어요. 제가 유순해 보인데다가 운동도 싫어하고... 아무튼 가장 큰 원인은 애들하고 취미가 안 맞았어요. 요즘은 게임이 대중화되어서 제가 설 수 있는 기반이 섰지만 그 당시에는 안 그랬거든요.

T: 그러면 너는 애들하고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안됐겠다. 한마디로 시시했겠네?

C: 네. 애들이 밖에 나가서 야구하고, 축구하고 놀 때 저는 책을 봤어요. 그렇게 되다보니깐 머리가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기가 힘들었어요. 그것이 친구가 적어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단순하게 노는 것이 좋은데 제가 너무 복잡하게 노니깐 왕따가 된 것 같아요.

T: 언제부터 너는 왕따가 되기 시작했다고 생각되니?

C: 네. 유치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는 무조건 애들한테 당했지만, 그 이후에 고등학교 때부터는 처세술을 깨달았어요. 언젠가는 제가 책을 안 훔쳤는데 저한테 누명을 씌웠어요. 그 때 그 녀석을 죽이고 싶다는 일념으로 도서관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잘 다루고 죽일 수 있는지에 관한 책들을 읽고 처세술로써 일부러 사악하게 다녀요.

T: 어떤 처세술?

C: 제가 OO 정보고등학교를 다니는데요, 정보 고나 상고 같은 데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애들이 저랑 생각의 차이가 많이 나요. 심지어 게임에 대해서도요, 저는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게임에 대한 정보를 빨리 빨리 접수하는데 친구들은 그렇지 못해요. 애들이 레인보우나 스타를 할 때, 저는 그 동안에 다른 게임을 하거나 게임의 개발까지 생각해요. 그런데 황당하게 애들이 저보고 잘난 척을 한대요. 7년간 왕따로 지내다 보니깐 성격이 약간 신경질 적으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건드니깐 짜증이 나서 또 다시 눈이 도끼눈으로 변했어요. 제가 정보 고를 들어간 이유는 컴퓨터를 할 수 있고 내신도 높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갔는데 실상을 보니깐 도토리 키 재기여서 실망이 컸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인문계로 전학 가라고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심도 있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T: 음... 민형아 너의 삶의 목표가 뭐니?

C: 저요? 저는 그래픽이나 프로그램 기술을 익힌 후 게임회사에 들어가서 경험을 쌓은 후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싶어요. 일이란 것은 자신이 즐겨야 하는 거예요. 저는 실패할 각오까지 하고 있어요.

T: 그렇구나. 민형아, 가족하고 대화하는데는 문제없니?

C: 엄마하고 대화는 충돌은 없지만, 성적에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안정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제 생각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아파하고도 공통적인 부분인데 모든 말에 종교를 넣어서 말씀하세요.

Session 3회(2000년 5월 16일)

T: 민형이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엄마·아빠가 새벽기도를 데리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M: 어렸을 때에는 민형이가 당연히 새벽교회를 다녀야 되는 줄 알고 따라 다녔는데, 조금 성장해서는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용돈이라든지 선물 등의 조건부로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민형이에게 부담이 되는 것인 줄 몰랐어요.

T: 민형이 문제가 외부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가족 내부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민형이는 새벽기도에 가는 것 자체를 싫어했는데, 조건부로 데리고 다닌 거예요. 문제 있는 가족의 문제는 규칙이 엄격하다는 거예요.

M: **민형이가 학교에 적응 못하고 하니까 수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신앙 면에서는 민형이를 자유롭게 키운 것 같은데 민형이는 그렇게 생각 안 했나 봐요. 민형이가 말도 안 했고요**

T: 문제는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한 거예요. 민형이 문제 해결책도 엄마·아빠 관계에 변화가 오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M: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이의 입장에서 전혀 생각지 못한 것 같네요 저희는 민형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민형이가 유아세례를 받아서 입교를 해야했는데 민형이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 아빠가 지금 세례 안 받으면 사회에 나가서 받기 힘들 것이라며 민형이한테 세례를 받으라고 강요했어요. 그런데 민형이 아빠는 민형이가 세례를 받으면 자신이 할 일은 다 한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한 마디로 그리스도와 민형이의 관계가 아니라 자신**

이 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세례 응답과정에서 민형이가 자신은 세례를 받기 싫은데 아빠의 강요로 받는다고 말한 거예요. 제가 데리고 나와서 세례는 앞으로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다시 선택하라고 그랬더니 민형이가 오늘 세례 받는 과정까지 2시간이나 걸렸는데, 나중에 또 받으면 귀찮으니깐 그냥 받는다고 했어요. 교수님! 교회를 가면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이 생활하는데 우리만 떨어져 나오는 생활(아들의 문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양육하는 것 보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고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도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T: 교회생활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자녀가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M: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빠가 인테리어 계통의 일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이는 직업이 아니어서 애 아빠는 굉장히 가정적인 분이예요. 그런데 민형이와 충돌하는 이유는 민형이가 정상적인 애들하고 달리 조금 튀는 행동을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해서예요. 그리고 아빠는 교회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민형이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형이는 아이들하고 어울리지 못해요. **아빠는 민형이가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문제가 있을 때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겨내라고 강요해요 민형이는 학교에서 튀는 행동을 해서 전체의 관심을 끌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아빠는 화가 나는 거죠**

T: 민형이 문제를 놓고 보면 민형이의 인생의 목표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된 후 벤처를 창업하는 거예요. 그 수단으로 OO정보고등학교를 갔는데 자신이 기대했던 기대치를 학교에서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실망이 컸어요. 하지만 자신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학교에서 적응하기가 더욱 힘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민형이 아빠는 민형이에게 자신의 인간상을 강요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M: 저는 우리 아이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초등 학교 때부터 학교를 안 보내고 제가 공부를 시켰으면 하는 생각도 했지만, 아빠가 원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계속 아빠의 방식대로 밀어 부치고 있어요.

T: 민형이는 아빠가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아빠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그래요. 민형이가 변화하려면 아빠가 변화해야 해요. 아빠의 기본 틀을 가지고 강요하면 민형이는 더 튀게 돼요.

Session 4회(2000년 5월 27일)

클라이언트는 검정고시를 치기로 하고 학교를 자퇴하기로 결정하였고, 부모 또한 클라이언트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T: 민형아 학교를 그만 두니깐 기분이 어떠냐?

C: 일단 정신적으로 압박하는 것에서 해방되었어요. 이제 공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T: 학교를 그만 두고 나서 너의 변화가 어떠니?

C: 저는 학교에서의 스트레스를 집에서 푸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부모님과의 갈등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데 친구가 없어서 조금 심심해요. 10월 달부터 학원 다니면서 검정고시 공부 할 거예요.

T: 민형아 아빠와의 관계는 어떠니?

C: 호전됐어요. 예전에는 “하지 마라” 위주로 때리시거나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안 그러세요. 크게 마찰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 자신의 문제예요. 하나는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태해 질 수 있는 거구요. 또 하나는 친구가 없어진 거예요.

여기에서 클라이언트와 아빠와의 관계에 변화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아빠가 지금까지 아들의 행동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시도해왔던 역기능적인 방법인 “하지 마라” 또는 “때리는” 방식에서 새로운 방법 즉, 아들의 행동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변화됨으로써, 클라이언트는 아빠와의 관계가 호전되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T: 아버님께서 민형이와의 관계에서 그 전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H: 훨씬 좋아졌어요. 학교를 다닐 때에는 되도록 계속 학교를 다니게 하려고만 했는데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는 오히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아빠처럼 지낼 수가 있어요.

T: 민형이에 의하면, 자신은 아빠의 인간상을 인정하지만 아빠는 자신의 인간상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아빠의 인간상만을 강요한다고 하던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 아까 민형이하고 차를 타고 오면서 차가 막힐 지 안 막힐지 아는 것처럼 아빠가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한테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T: 민형이는 아빠한테 그런 말 들었을 때 어땠니?

C: 아빠 말씀에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아빠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많이 변했기 때문

에 반 정도는 먹힌다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주장하시는 인간상은 욕하지 않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인간상은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반항이나 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T: 민형이가 이제 많이 변한 것 같아. 특히 눈이 많이 풀렸어.

C: 그것은 얽매어 있던 것을 풀어버려서요. 사회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표출 못하였기 때문에 눈이나 성격 또는 기타 다른 언행으로 영향이 크게 작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들을 풀어버려서 괜찮아요.

처음에 상담실에 왔을 때 보였던 클라이언트의 도끼눈이 오늘은 거의 완전히 사라지고 일반적인 학생들이 보여주는 눈빛을 가지고 있어서, 치료자는 클라이언트에게 있어서 너무나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게 되었다.

T: 동생하고의 관계는 어떠니?

C: 부모님은 제가 동생들에게 조그만 행동을 해도 과민반응을 해요. 저희 집은 위계질서가 파괴됐어요. 제가 말을 하면 동생들이 막 무시해요. 그래도 여동생하고는 말이 통하는데, 남동생하고는 마찰이 심해요. 남동생이 고집이 세요.

T: 상담을 하고 나서 민형이 하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F: 좋아졌죠. 민형이가 학교라는 굴레를 벗어난 후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 학교 문제로 엄마하고 의견차이가 있었어요. 초등학교·중학교 때부터 학교를 그만두게 하자는 말이 있었지만 제가 학교도 사회이기 때문에 적응을 하는데까지는 해보고 최소한 중학교는 나와야 한다고 학교를 보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방치를 하면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다고 생각해서 자퇴를 시켰어요. 민형이를 믿지만 지금부터가 문제죠. 되도록 공부도 공부지만, 자기 자괴감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앞으로 민형이를 강압적으로 키우지 않으려고요. 그 전에는 강압적으로 해서라도 견딜 수 있도록 강하게 했지만 지금은 제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클라이언트와 아버지의 관계에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그 저변에는 아버지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양육방식의 변화가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Session 5회(2000년 6월 3일)

T: 너 학교 그만두고 지금 상태가 어떠냐?

C: 보다 안정적이고 ~~아빠~~하고도 별로 마찰이 없어요 ~~아빠~~가 이제는 저의 이야기를 잘 받아주세요. 엄마하고는 여전히 사이는 좋지만, 제가 욕을 하기 때문에 가끔 마찰이 생겼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욕이 많이 줄어서 사이가 더 좋아졌어요.

T: 근데 네가 욕이 많이 줄었지만 부모님께서 네가 욕하는 것을 받아주시니?

C: 욕에 대한 거부반응을 지금도 느끼긴 하시죠. 하지만 제가 학교에 안나가고 욕이 많이 줄었어요. 가끔 동생들한테는 심한 장난을 치는데 부모님들께서 그것은 아직 이해를 못하세요.

T: 민형이 참 많이 좋아졌구나. 그런데 가족관계에서 욕구 불만이 있니?

C: 가족들하고는 없고요. 저의 개인적인 불만인데요. 공부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다는 것과 저의 분신과도 같은 오락을 못한다는 거예요. 오락은 저에게 있어서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제가 왕따였을 때 친구보다 더 가깝게 느껴졌기 때문에 오락을 못하게 하면 저의 한쪽 신체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었지만 지금은 게임 매니아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에는 게임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게임을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해서 친구들이 없었지만, 중학교 2학년 때쯤에 게임으로 사람들과 말이 통해서 친구들이 기아 급수 적으로 늘었어요.

T: 민형아. 너 요즘 가족예배는 어떻게 드리니?

C: 그런 것은 지나가는 개나 쥐버려요.

M: 저희가 가족예배는 드리고 싶어하는데 각자 생활이 바쁘고 그래서 안 드린 지 오래됐어요. 아빠는 가족예배를 드렸으면 하는데 저희가 환경적으로 조금 힘들어요. 앞으로 해야겠다고는 생각해요.

C: 그런데요. ~~엄마·아빠~~의 광적인 태도를 보면 저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어도 ~~엄마·아빠~~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온 후 병원에 갈 것 같아요. ~~엄마·아빠~~는 너무 맹신적이에요. 제가 3살 때부터 7살 때까지 지랑 동생을 집에만 두고 저녁예배를 다녀왔어요. 그 때 집에서 남동생이랑 집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 때부터 교회에 반감을 가졌어요. 그리고 억지로 교회에서 만든 유치원에 넣었어요. 저는 저를 괴롭히는 애들을 교회에 가면 또 만났어요. 다른 교인들은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교회에서 풀면서 행복해 하지만 저에게 교회는 저속 그 자체예요. 저는 교회가면 애들이 때리고 괴롭혔어요. 교회서 스트레스를 받다보니깐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욕도 늘고 거짓말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엄마·아빠에게 교회 안 간다고 그랬는데 엄마·아빠는 맹신적으로 '가지 않으면 제가 죽는 것 처럼 이야기를 해서 무조건적으로 보낸 거예요 지금도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지옥의 한 장이예요 교회는 저에게 악을 심어준 곳 이예요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교회에서 2배가 됐어요 제가 욕을 하게 된 것은 사람을 때리는 것 보다 덜 맞기 때문이예요 그런데 엄마·아빠는 욕을 하면 야단치시니깐 짜증이 배가 돼서 담배나 술을 배우려고 까지 했어요

T: 상담을 하기 전에 너랑 동생들에 대해서 부모님께서서는 모든 전권을 쥐고 계셨니?

C: 그런 편이죠. 거기다가 전 장남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기대를 하셨어요. 그 때부터 저는 자연이나 사회학에 대해 많이 깨우쳤고 그러다가 천재라는 기괴한 소문이 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중압감도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보통인간이라고 자각하고 거기서 어느 정도 벗어났어요.

T: 지금도 아버님이 민형이에 대한 기대가 큰가요?

M: 민형이에게는 특별히 그런게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잘했는데 민형이에게는 남자답게 키워한다면서 권위적이었어요.

Session 6회(2000년 6월 10일)

T: 처음에 왔을 때와 달리 민형이 얼굴이 많이 변했어요.

F: 민형이는 지금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10시-12시까지 과외를 하고, 2시-6시까지 학원에 가구요.

M: 대학 가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 일어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민형이는 잡지는 다 보고 있는데 게임에 대한 지식을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 것이 일본잡지고, 또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어를 읽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강압적으로 공부를 하게 했지만, 학원을 갔더니 선생님들이 모두 경어를 쓰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민형이의 가능성과 능력을 인정해줘서 학원 가는 것이 즐겁데요.

T: 아빠하고 대화는 어떠세요?

F: 전혀 지장 없어요.

M: 아침에 아빠랑 같이 나가고 들어올 때도 함께 만나서 오기도 하는데 돈을 타기 위해서 최 대한 아빠한테 애교를 떨어요.(하하하) 사실 학교를 그만 두면서 민형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서 굉장히 염려했어요. 민형이가 학교를 안감으로써 잠깐 동안의 생각이지만, 아이들 속에서 생활하지 않아서 더욱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우울증 같은 것이 올 것 같고, 민형이가 잠깐 동안 쉬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민형이한테 물어 봤는데 그 동안의 삶은 굉장히 딱 막혔고 인생에 대해서 회의를 갖았는데 '요즘은 내가 살아서 할 일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해요.

T: 저도 욕을 많이 해요. 그것이 성숙하지 못한 것은 인정해요. 그러나 제 분노를 그렇게 표출했다는 것에 속이 시원해요.

F: 저는 욕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해요. 어떤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조금 긍정적이기 때문에 기왕 하려면 기분 좋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민형이에게 욕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라면 꼭 욕 가지고만 스트레스를 풀어야만 하느냐?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욕을 안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인격이 지켜질 수 있다는 거죠. 욕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인격의 흠집이 되면 됐지 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T: 민형이 아버지께서 자라오면서 욕을 들으신 적이 있나요?

F: 없어요. 그런데 단지 내가 느끼기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욕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며 살아왔어요. 물론 전혀 안 한다면 거짓말이고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안 하는 편이죠. 너무 화가 나면 '이 새끼'야 정도...

M: 저와 제 남편은 자라면서 가족간에 욕 없이도 좋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요즘 민형이를 보면 성격이 급해서 욕을 잘 뱉어요. 지금은 욕의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는데 급하면 뱉어요. 한 순간에 고쳐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가 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F: 저희가 욕에 대하여 민감하다기보다는 민형이가 굉장히 욕이 심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민형이가 욕하는 것이 95%정도 없어진 거예요.

T: 민형이를 보면 '상황 속의 인간'이라는 것을 느껴요. 외부에서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을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욕을 하고 과격한 게임을 하는 거예요.

F: 민형이는 인상을 쓰고 욕을 하는 것이 자신의 방어 능력이라는 거예요. 좋다. 그럴 수 있다.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왜 집에서 습관적으로 욕을 하냐는 거죠. 욕을 하고 싶으면 해라.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 옛날 이야기죠. 지금은 안 그래요.

M: 그 환경에서 끊어주니깐 공부하는 시간을 지루해 하지 않고 공부하는 것을 즐기려고 해요. 학원을 다니면서 영어, 일어, 수학공부 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

러 자신이 공부를 하겠다고 해요.

T: 형제 관계는 어때요?

M: 다행스러운 것은, 동생이 성격이 워낙 좋아요. 어렸을 때 형이 부딪히는 것을 많이 봐서 형이 안 하는 쪽을 하는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동생이 유머스럽게 넘겨 가지고 형을 웃게 만들어요. 그래서 형이 이 애만 만나면 무조건 웃어요. 그래서 들어 잘 어울리면서 친구가 없는 외로움을 제가 굉장히 염려했는데 방학동안에 동생이 있으니까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동생은 형을 존경하는 면이 있어요. 둘째는 성격이 아주 좋고, 친구관계도 아주 좋은데 책 읽는 것을 아주 머리 아파해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 중에 오락에 관심이 있는 애들은 많은데, 형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정보를 형이 제공해 주니까 친구들이 형을 모두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형을 아주 존경해요. 그리고 형의 욱하는 성격에 있어서 그것을 잘 이해하고 용화를 시켜요. 그래서 동생하고 께안고 자기도 하구요.

T: 여동생 한 명 있잖아요. 민형이가 상담 때마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형제들 사이에서 자기 권위가 안 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더군요.

M: 그런 면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욱하고 과격하니까 자꾸 부딪히고, 학교 가기 싫다고 그러니까 동생은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너만 그러냐는 식이 됐어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를 해결하기에 좋은 방법이 아이에 대해서 아빠가 이해해주고, **민형이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문제였어요. 학교에서 부딪히고 학교생활이 어려우니까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했는데, 우리는 그 방법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학교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없으니까 민형이가 욱도 안 하고 편안해지고, 또 우리가 보기에 아이의 변화가 오니까 좋고 인정해주니까 동생들도 민형이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지 않고 질서가 제대로 잡혀가요. 그리고 또 거기에 아빠가 빨리 결정하고 대처를 해 주었죠**

T: 아버지께서 지혜롭게 잘 대처하신 것 같네요. 민형이의 변화가 거기서 온 거죠.

M: 솔직히 저는 그 결정에 대해서도 저한테 큰 쇼크였어요. 저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결정은 못 내렸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용기 있게 결정을 내렸고, 지금 민형이에 대해서 엄청 뒷바라지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말씀 드렸죠. 애들이 컴퓨터 한 대가지고 서로 하려고 싸운다고. 하지만 지금은 아빠가 컴퓨터 2대를 더 사서 컴퓨터 3대를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똑같이 인터넷을 하니깐 싸울 일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 사주고 하니깐

T: 아버지께서 무척 노력을 많이 하셨군요.

M: 무척 노력 많이 했죠. 처음에는 제대로 학교를 졸업시키려고 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용단을 내리고 그때부터 완전히 교육방법에 대하여 또 다른 결정을 내린 거죠.

T: 그러시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아버님이 대단하신 것입니다.

M: 이제는 민형이 아빠가 어디 나가다 들어오면 민형이를 보며 웃어요. 벌써 친구보다 훨씬 개구쟁이 표정을 짓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민형이도 엄마는 문제도 아니고 용돈을 아빠를 웃겨서 타요. 이제는 아들을 보면 감사하고 있습니다.

VI. 결론

클라이언트의 집단따돌림 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치료자는 먼저 가정 내에서 부모와 상담 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해왔던 의사소통 방식을 관찰하였다. 클라이언트가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함으로써 받게 되는 스트레스를 집안에서 동생들에게 지나치게 욕을 하거나 인상을 쓰는 것에 대하여 과민하게 반응을 하였는데, 치료자는 상담실에서 역설적으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에서 오히려 클라이언트의 욕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행동은 단지 클라이언트의 분노를 표출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인정하게 함으로써 부모들 또한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클라이언트는 부모와의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학교를 자퇴함으로써 집단따돌림 당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차단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환경적 변화와 더불어 가족 내에서 부모와의 관계 변화로 인하여 클라이언트는 자신을 수용해주는 가족내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클라이언트가 부모와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으로부터 클라이언트는 좀 더 명확한 경계선을 확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짐으로써 분리된 경계에서 좀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부모와의 관계 변화로 인하여 부모는 클라이언트를 장남으로서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고, 형제들 또한 클라이언트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변화를 보였다. 상담이 종결된지 4개월 후 클라이언트 어머니로부터 클라이언트가 이제는 안정되고 집에서도 웃음이 많아져 너무 감사하다는 전화가 왔다.

참고문헌

- 강진령·유형근 (2000). 집단괴롭힘. 서울: 학지사.
- 구본용 (1997). 청소년의 집단따돌림의 원인과 지도방안. 서울: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 박인철 역 (1995). 변화. 서울: 동문선.
- 서영창 (1999). 청소년 집단 따돌림 학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가정법원 소년자원보호협의회, 제 14회 청소년 상담세미나 자료집.
- 이상균 (1999). 중학생 또래따돌림(왕따)의 예측요인, 한국사회복지학, 37, pp. 357-379.
- 황성숙 (1998). 학교 내 집단괴롭힘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Baucom, D. H., Epstein, N., & Rankin, L. A. (1995). Cognitive aspects of cognitive-behavioral marital therapy. In N. S. Jacobson, & A. S. Gurman (Eds.), *Clinical handbook of couple therapy* (pp. 65-90).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hristensen, A., Jacobson, N. S., & Babcock, J. C. (1995). Integrative behavioral couple therapy. In N. S. Jacobson, & A. S. Gurman (Eds.), *Clinical handbook of couple therapy* (pp. 31-64).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Colapinto, J. (1991). Structural family therapy. In A. S. Gurman & D. P. Kniskern(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 (Vol. 2) (pp. 417~443). New York: Brunner/Mazel.
- Duncan, B. L., Solovey, A. D., & Rusk, G. S. (1992). *Changing the rules: A client-directed approach to therapy*.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Goldenberg, I. & Goldenberg, H. (2000). *Family therapy: An overview* (5th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Jacobson, N. S. (1986). Marital therapy: A social learning-cognitive perspective. In N. S. Jacobson, & A. S. Gurman (Eds.), *Clinical handbook of marital therapy* (pp. 29-70).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Lewis, J. A. (1992). Treating the alcohol-affected family. In L. L'Abate, J. E. Farrar, & D. A. Serritella (Eds.), *Handbook of differential treatments for addictions* (pp. 61-83). Needham Heights: Allyn and Bacon.
- Nichols, M. P. & Schwartz, R. C. (2001). *Family therapy: Concepts and methods* (5th).

- Boston: Allyn and Bacon.
- Nichols, M. P. & Schwartz, R. C. (1995). *Family therapy: Concepts and methods* (3rd). Boston: Allyn and Bacon.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Cambridge, MA: Blacwell.
- Prochaska, J. D., & Norcross, J. C. (1999). *Systems of psychotherapy: A transtheoretical analysis* (4th ed.), New York: Brooks/Cole.
- Roland, E. (1988). Reported in council for cultural cooperation report of the European Teachers Seminar on bullying schools. Strasbourg: CCC.
- Schlanger, K. & Anger-Diaz, B. (1999). The brief therapy approach of the Palo Alto Group. In D. M. Lawson & F. F. Prevatt. *Casebook in family therapy*(pp. 146-168). New York: Brooks/Cole.
- Shoham, V., Rohrbaugh, M., & Patterson, J. (1995). Problem-and solutions-focused couple Therapies: The MRI and Milwaukee models. In N. S. Jacobson, & A. S. Gurman (Eds.), *Clinical handbook of couple therapy* (pp. 142-163).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Schuster, B. (1996). Mobbing, bullying and peer rejection. <http://www.apa.org/psa/julagu96/sb.html>.
- Watzlawick, P., Weakland, J., & Fisch, R. (1974). *Change: problems formation and problem resolution*. New York: W. W. Norton.
- Weakland, J. H. (1993). Conversation-but what kind? In S. Gilligan, & R. Price (Eds.), *Therapeutic conversations* (pp. 136-145). New York : Norton.
- Weakland, J. H. (1976). Communication theory and clinical change. In P. J. Guerin, Jr. (Ed.), *Family therapy: Theory and practice*(pp. 111-128). New York: Gardner Press.
- Weakland, J., Fisch, R., Watzlawick, P. & Bodin, A. M. (1974). Brief Therapy: Focused Problem Resolution. *Family Process*, 13, pp. 141-168.